

## 五土齋 傳存文書의 現況과 特徵

황 위 주\*

- I. 머리말
- II. 문서의 일반적 현황
- III. 주요 문서의 내용과 특징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오토재에 전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 것이다. 오토재 문서는 전체 202건 3500면 가량으로 파악되었다. 시기적으로는 1945년 이후 현대문서가 제일 많았고(50% 이상), 일제강점기 문서가 그 다음이며(약 30%), 1910년 이전 고문서는 약 29건(15%) 정도였다. 내용상으로는 時到 參謁錄 등 방문 인물 관련, 都錄 文簿 등 재정 관련, 齋任案 執事分定 등 운영 주체 관련, 節目 事例 등 운영 규칙 관련, 기타 시설의 重建 보수와 관련된 문건 등 5종이 주목할 만하였다. 방문 인물 관련 문건은 전체 문서의 1/3 이상에 달할 정도로 수량이 많고, 기록 내용도 다양하고 장기 지속적이었다. 오토재의 방문자 규모와 시기별 변화양상,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 등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자료로 주목할 만하였다. 재정 관련

---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wzhwang@knu.ac.kr

문건은 인물 관련 문건에 버금갈 정도로 많았으며, 오토재의 재정기반과 수입 지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제사물품, 임원예우, 공사비, 접대비 등 재정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였다. 운영 주체 관련 문건은 임원의 인적사항을 시기별 사안별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면 오토재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 현황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 임원의 수와 직종의 변화 양상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운영원칙 관련 문건은 많지 않았다(7건). 그러나 임원선출, 임원예우, 제사준비, 성금모금 등 다양한 규칙을 두루 기록하여 오토재가 어떤 규칙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 가치가 있었다. 중건 보수 관련 문건은 간접자료까지 포함할 경우 60여건에 달하였다. 그래서 이를 보면 오토재 관련 주요 시설의 역사적 변천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몇 종의 일기는 기록 내용이 자세하고 체계적이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었다. 기타 문서 가운데도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 자료가 많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경우 영남지역 齋舍와 鄉賢祠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한 표본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주제어

김용비(金龍庇), 진민사(鎭民祠), 오토재(五土齋), 고문서, 의성김씨, 재사(齋舍), 향현사(鄉賢祠)

## I. 머리말

五土齋는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五土山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고려시대 太子詹事를 역임하고 義城君에 봉해진 의성김씨의 시조 金龍庇를 제향하기 위해 집안에서 건립한 齋舍이다. 오토산 묘소 아래 있는 齋舍라 하여 흔히 ‘五土齋’라 일컬었으며, 문헌에 따라 ‘土齋’ ‘五土齋舍’ ‘五土山齋舍’ 등으로 일컫기도 하였다.<sup>1)</sup>

오토재와 별개로 의성 읍내에는 鎭民祠라는 祠宇가 따로 있었다. 김용비가 세상을 떠난 직후 그가 생전에 남긴 공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다는 것인데, 당초 오토재와 성격이 많이 달랐다. 집안에서 세운 齋舍가 아니라 고을에서 공동으로 제향한 鄉賢祠의 일종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양자가 함께 병존하였는데, 조선 말 이를 오토재 경내에 別廟 형식으로 이관하여 하나로 통합시켰다.<sup>2)</sup> 이후 진민사는 오토재의 일부처럼 인식되었으며, 관리와 제향 또한 의성김씨 집안에서 주로 맡아 하였다.

오토재는 이처럼 당초 별도로 존재하던 재사와 향현사를 후대에 하나로 통합 운영한 곳이라는 점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영남지역의 대표적 土姓 가운데 하나인 의성김씨 집안의 시조를 모시고 있는 곳이라는 점, 관향의 원류지에 줄곧 그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부단히 그 기능을 지속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걸쳐 생산된 다양한 문서 자료를 보기 드물 정도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본고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오토재에 전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과 주요

1) 「土齋秋享時文簿」(박174) 「五土齋舍都錄」(박161) 「五土山齋舍重建時錢下記」(박135) 같은 각종 문서의 표지 題名에서 이런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2) 1890년 진민사 옛 터에 遺址碑를 세우고 金興洛(1827~1899)이 「鎭民祠遺址碑陰記」를, 의성현령 金胤鉉이 「鎭民祠遺址碑陰記後識」를, 金道和(1825~1912)가 「鎭民祠遺址碑閣記」(1890년 流頭節)와 「鎭民祠移建上樑文」을 지은 사실 등을 참고해 볼 때 1868년 경 대원군의 書院毀撤令으로 鎭民祠가 훼손될 무렵 이를 五土齋 경내로 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및 특징을 간단하게 검증해 보고자 한다. 오토재 문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정식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 최근 문서 일부를 召文國博物館으로 이관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목록 약 130여건이 지금까지 알려진 전부다.<sup>3)</sup> 따라서 본고는 오토재 문서의 전반적 현황을 학계에 소개함과 아울러 영남지역 사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재사와 향현사의 운영 실상을 파악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문서의 일반적 현황

오토재에 전존하고 있는 문서 가운데는 외형 상 별개 문건처럼 보이지만 내용 상 특별한 차이가 없는 문건이 더러 있다. 「己亥十月日 五土齋都錄」(박 165) 「一九八八年(戊辰)春享時以降 時到記(其一)」(잔47) 등이 그런 것인데, 이는 당초 작성한 초고본과 이를 정리한 정서본이 함께 전해진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부 문건은 동일 계열의 여타 문건 속에 그 내용을 일괄 편입시켜 독립적인 가치가 적은 것도 있는데, 「丙午十月十日始 五土齋花樹會」(박 225) 「辛酉二月日 時到」(잔46) 등이 그런 예이다.<sup>4)</sup> 이렇듯 중복성이 강한 일부 문건을 제외하면 오토재 문건은 대략 202건 3500면 내외로 추산된다. 단일 재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량이다.

시기적으로 오토재 문서는 16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400여년에 걸쳐 있다. 첨사공 김용비가 세상을 떠난 직후 고을 사람들이 진민사를 건립하였다고 하니, 적어도 진민사에서 김용비를 제향하기 시작한 고려후기부터는

3) 2014년 오토재 소장 문서 약 130여 건을 의성군 召文國博物館으로 이관하였고, 이관 즉시 이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하여 간략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4) 「丙午十月十日始 五土齋花樹會」은 「五土齋花樹契」에, 「辛酉二月日 時到」는 「時到錄(1981~1990)」에 편입 정리되었다. 기타 「一九八八年十一月 芳名錄」 또한 그 내용 전체가 「時到記(1988~1997)」에 편입 정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서 생산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문건 가운데 고려후기나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선 후기 효종연간에 외손 安應昌이 의성현령으로 부임하여(1656년) 진민사를 관아 옆에서 동쪽으로 조금 옮겨 중건하고, 묘소 아래쪽에 따로 재실을 건립하며, 묘소에 문신석 무신석 같은 각종 像設을 구비한<sup>5)</sup> 17세기 이후의 문서만 남아있는데, 이후 문서의 시기별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 표1과 같다.

표1 : 오토재 문서의 시기별 현황

	박물관 이관 문건	오토재 잔존 문건	합계
1600년대	1건	0건	1건
1700년대	4건	0건	4건
1800년대	18건	0건	18건
1901~1910	6건	0건	6건
1911~1945	57건	2건	59건
1946~1988	36건	51건	87건
1989~2000	2건	9건	11건
2001 이후	0건	6건	6건
미상, 기타	7건	3건	10건
합계	131건	71건	202건

표1에서 ‘박물관 이관 문건’은 오토재 소장 문건 약 131건을 조문국박물관으로 이관한 다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목록을 수정 보완하여 파악하였다.<sup>6)</sup> 그리고 오토재 잔존 문건은 오토재에 아직 그대로 소장

5) 金應祖의 「鎮民祠移建記」(攷往錄 所載)에 이런 사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6)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작성한 목록에는 133건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박물관114번 「所志」는 1건의 연결문서를 2건으로 처리하였고, 박물관233번 「規定」은 박물관159번 「議事記錄簿」와 동일 문건이다. 그래서 전체 131건으로 파악하였다. 이 외에 연대 파악의 착오도 적지 않다. 박물관155번 「都錄」(1909년:1849년임), 132번 「詹事公神道立石告由時爬錄」(1954년:1924년임) 등이 그런 것인데, 본고에서는 이런 착오를 가능한 모두 바로잡아 반영하고자 하였다.

하고 있는 것인데, 필자가 사진판을 입수하여 새롭게 파악하였다. 그리고 잔존 미상 3건은 일제강점기 이전 문건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연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미상으로 처리하였다.<sup>7)</sup>

표1을 보면 오토제 문서가 대략 1910년 이전 고문서 약 29건, 1911~1945년 사이의 일제강점기 문서 약 59건, 1946년부터 1988년 중건 때까지의 현대문서 약 87건, 1989년 이후 최근 문서 약 17건, 기타 미상 문서 약 10건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광복 이후 현대문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제강점기 문서가 약 30%로 그 다음이며, 1910년 이전 고문서는 약 15% 정도로 비중이 높지 않았다.

현존 문서 가운데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은 「祠宇移創時列邑扶助記」(박112)이다. 효종7년(1656) 安應昌이 의성현령으로 부임하여 진민사를 이길 때 각 고을에서 부조한 내역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이다. 부조 주체는 의성현령 安應昌 자신을 비롯하여, 梁山郡守(金述), 靑山縣監(金玪), 察訪(李廷機) 등의 관리, 鄉所 임원(朴滢 申佑 蔣時薰), 武學堂 有司, 鄉校 齋任(徐再鳴 李志寔), 米溪書院 齋任, 鄉吏(金希顏 金孝躍 丁信立 李民 吳尙右) 등 다양한 신분과 성씨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소재지는 의성과 주변 상주 안동에서부터 멀리 청송 합천 초계 등 경상도 각처에 널리 분포하였고, 부조 내용은 白米 正租 常木 片鐵 正鐵 소금(鹽) 장(醬) 누룩(麴) 등 갖가지 물품 중심이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진민사가 당초 경상도 일원의 많은 관민이 공동으로 참여한 향현사의 일종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문서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오래된 문서는 1700년대의 「謁廟錄第一」(박145), 「謁廟錄」(박147), 「展省錄第三」(박124), 「省墓錄第二」(박146)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알

7) ①「春享時文簿」(壬子) ②「土齋秋享時文簿」(癸丑) ③「春享時時到」(丙寅) 등 3건이다. ①②는 돈을 兩과 錢으로 표기한 내용이 있어서 1912년 壬子年과 1913년 癸丑年 이전임을 알 수 있다. ③은 노비를 거느리고 왔음을 가리키는 ‘率奴’란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926년 丙寅年 이전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타 오토제 잔존문건 가운데 「時到」(庚申) 「契約書」(辛未) 등도 내용을 참고할 때 1920년 庚申年과 1931년 辛未年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묘록 2건은 현종5년(1664)부터 정조21년(1797)까지 진민사를 배알한 인물 명단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각 인물의 신분(진사 생원 관직 등), 성명, 자, 생년, 거주지, 기타 특이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sup>8)</sup> 그리고 「展省錄第三」은 영조30년(1754)부터 47년(1771)까지 진민사 2월 춘향과 8월 추향의 집사자와 참사자 명단을, 「省墓錄第二」<sup>9)</sup>는 영조48년(1772)부터 52년(1776)까지 매년 10월 10일 거행한 묘사 참사자 명단을 기록하였는데, 개인별 기록 내용은 알묘록과 대동소이 하였다. 이 4건의 문서는 오토재 고문서 가운데 연대가 비교적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진민사를 배알하거나 춘·추향과 묘향 등에 참여한 인물의 규모, 성격, 지역별 분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데 중요성이 있다.

다음 1800년대부터 1910년 일제강점 직전까지의 문서가 약 24건 가량인데, 종류와 내용이 이전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이 중에는 물론 묘사 참사와 집사분정 내역을 기록한 「展省錄第四」(1805년~1844년), 춘향 때의 집사분정을 기록한 「展省錄第六」(1894년~1899년) 등 1700년대 「省墓錄第二」(박146)나 「展省錄第三」(박124)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건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는 대부분 이전에 볼 수 없던 것들인데, 먼저 그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800년~1910년의 문서 현황 : 23건<sup>10)</sup>

- ① 展省錄第四(박125) : 1805년~1844년. 10월 묘사 집사분정과 참사자
- ② 五土山齋舍事例(박123) : 1848년. 오토재 향사와 관련된 규정<sup>11)</sup>
- ③ 都錄(박155) : 1849년. 오토재 추수 및 지출내역

8) 「謁廟錄第一」(박145)은 1664년~1777년 배알자 명단을, 「謁廟錄」(박147)은 1762년~1797년의 배알자 명단을 기록하여 연도가 일부 중복된다. 그러나 기록 내용은 중복이 전혀 없으며, 「謁廟錄」(박147)이 「謁廟錄第一」(박145)의 누락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9) 뒷부분에 묘소 수리 시 집사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10) 이 시기 문건 24건 중 「時到錄」(박230)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제외시켰다.

11) 序文, 節目, 田畵案, 思敬樓重建記(1850년), 田畵案見在記(1872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傳令(박116) : 1877년. 齋直에게 오토산 松楸 守護를 명하는 문서
- ⑤ 傳令(박117) : 1877년. 舍谷面에 오토산 松楸 守護를 명하는 문서
- ⑥ 傳令(박117) : 1877년. 南部面에 오토산 松楸 守護를 명하는 문서
- ⑦ 傳令(박117) : 1877년. 上川面에 오토산 松楸 守護를 명하는 문서
- ⑧ 回文(박119) : 1877년. 오토재 首任 薦望 등을 위한 宗會 개최 통문
- ⑨ 所志(박114) : 1878년. 1월 金柱洛 등이 의성현령에게 오토산 偷葬 고발
- ⑩ 所志(박115) : 1878년. 4월 金鳳和 등이 의성현령에게 偷葬 掘去 독촉
- ⑪ 所志(박115) : 1884년. 2월 金常壽 등이 의성현령에게 오토산 松楸 斫伐 고발
- ⑫ 所志(박113) : 1884년. 2월 金鎮大 등이 의성현령에게 오토산 松楸 斫伐 고발
- ⑬ 傳令(박117) : 1884년. 舍谷面 南部面 上川面 등에 松楸 守護를 재차 명함
- ⑭ 五土山別廟享禮時事例(박122) : 1891년. 오토재 별묘의 향례 관련 규정<sup>12)</sup>
- ⑮ 墓祀時時到(박213) : 1896년. 10월 묘사 참여자 명단.
- ⑯ 春享時下記(박197) : 1896년. 춘향 시 금전지출내역.
- ⑰ 展省錄第六(박130) : 1894년~1899년. 2월 춘향 시 집사분정
- ⑱ 五土山墓位田畓案(박196) : 1890년~1910년. 오토재 墓位 전답 구입 내역
- ⑲ 五土齋舍都錄(박152) : 1906년. 오토재의 추수 및 지출내역
- ⑳ 五土齋舍都錄(박153) : 1907년. 오토재의 추수 및 지출내역
- ㉑ 五土齋舍都錄(박154) : 1908년. 오토재의 추수 및 지출내역
- ㉒ 文簿(박175) : 1909년. 오토재의 추수 및 10월 墓享 지출내역
- ㉓ 文簿(박176) : 1910년. 오토재의 추수 및 10월 墓享 지출내역

위를 보면 1800년대부터 1910년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고문서가 대단히 다양함을 한 눈에 간파할 수 있다. 춘·추향이나 묘사에 참여한 인물 현황을 기록한 문서(①⑮⑰), 관청에 올린 所志(⑨⑩⑪⑫), 관청에서 발급한 傳令(④⑤⑥⑦⑬), 향사 운영의 예규(②⑭), 田畓案(⑱), 수입 지출장부(③⑯⑰⑲⑳㉑㉒㉓), 중회 개최를 위한 通文(⑧) 등 오토재의 구체적 운영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종류의 문서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800년대 후반의 傳令 5건과 所志 4건이다. 전령 5건은 모두 의성현령이 오토재 齋直과 그 주변의 사곡면 남부면

---

12) 1890년~1894년의 秋收記 下記 春享時文簿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천면 등에 오토산의 松楸를 수호하도록 특별히 명령을 전달한 官文書이다. 소지 4건은 의성김씨 집안사람들이 의성현령에게 연명으로 오토산의 偷葬이나 松楸 벌목을 엄금하도록 조치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청원서이다. 1800년대 문서 중에서는 이런 傳令과 所志가 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를 통해 19세기 후반 오토재 수호를 위해 집안에서 특별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 직전 문서는 모두 오토재의 위토 현황과 수입 지출 내역을 기록한 都錄(19,20,21) 文簿(22,23) 田畝案(18) 등인데, 이를 1800년대의 都錄(3) 下記(16) 등과 함께 참고할 경우 일제강점 이전 오토재의 개략적인 재정 규모와 운용 실상을 거칠게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1910년 일제강점 이후부터는 오토재 관련 문서가 대단히 충실하게 남아 있다. 전령 소지 같은 전통 방식의 고문서야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토재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되는 문건, 예컨대 재정, 임원, 규칙, 참사자, 제향절차, 중건과 보수, 기물, 자손록 등 인적 물적 상황과 관련되는 각종 문건이 다른 어떤 곳보다 풍부한데, 먼저 그 개략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 오토재 문서의 내용별 현황

	박물관 이관 문건	오토재 잔존 문건	합계
관청관련	所志4(4), 傳令5(5),	없음	9(9)건
재정관련	都錄20(4), 文簿20(2), 下記9(1), 冠錢收納冊8, 收支記2, 秋收記2, 契約書2, 扶助記1(1), 田畝案1(1)	都錄4, 文簿2, 簿記1, 獻誠錄1, 契約書1,	74(9)건
임원·규칙	任案3, 備三望2건, 事例2(2), 契案2건,	任司錄1, 任員錄1, 契案2, 建議文1	14(2)건
참사·제향	時到12(1), 展省錄8(3), 執事分定記3, 祭物品數記1, 笏記1, 飲福開座1	時到51	77(4)건

연락·방문	回文1(1), 簡札4, 謁廟錄2(2), 省墓錄1(1), 尋齋錄1	參謁錄2, 芳名錄2, 謁廟錄1	14(4)건
기타	攷往錄1, 器物傳與記2, 子孫錄3, 日記3, 上樑文2건, 宗族說1건	五土齋物品傳與記1	13(0)건
합계	131(28)건	71건	202(28)건

표2는 오토재 전존 문건 전체 202건을 내용별로 구분해서 정리해본 것이다. 이 가운데 ( )로 처리한 所志4건, 傳令 5건, 都錄 4건, 文簿 2건, 下記 1건, 扶助記 1건, 田畓案 1건, 事例 2건, 時到 1건, 展省錄 3건, 回文 1건, 謁廟錄 2건, 省墓錄 1건 등 도합 28건은 일제강점 이전의 문서이다.<sup>13)</sup> 나머지는 모두 그 이후 문서인데, 내용의 다채로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재정 상황을 기록한 都錄 文簿 下記 收支記 秋收記 田畓案 獻誠錄 등을 비롯하여, 임원이나 운영 규칙을 기록한 任案 任員錄 備三望 事例 會議錄 契案, 참사자나 제향 관련 사항을 기록한 時到 展省錄 執事分定記 祭物品數記 笏記 飲福 開座, 종회 연락을 위해 작성한 回文과 簡札, 참배 혹은 방문자 현황을 기록한 參謁錄 尋齋錄 芳名錄, 기타 오토재의 역사적 사실 기록을 따로 편집한 攷往錄, 물품을 인수인계한 器物傳與記와 物品傳與記, 건물의 증건 혹은 보수 관련 상황을 기록한 日記, 성금 모금을 위해 정리한 子孫錄 등 오토재의 운영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건이 참으로 다양하다.

이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행사에 참여한 인물 현황을 기록한 時到(63건)이고, 다음은 연도별 수입과 지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都錄(24건)과 文簿(22건)이며, 기타 재정운동과 관련된 下記(9건)와 冠錢收納冊(8건), 춘추향이나 묘향의 집사분정 내역을 기록한 展省錄(8건), 각종 임원 명단을 기록한 任案類(5건) 등이 비교적 많다. 그리고 다음 몇 가지는 1건 혹은 여타 문건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회소성의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3) 표1에서는 29건으로 제시하였으나, 내용 파악이 어려운 「時到錄」(박230)을 제외시켜 28건이 되었다.

- ① 土齋松楸發賣時(박199) : 1915년 松楸 매도 시 가격과 지출내역
- ② 五土山齋舍重建時食下記(박138) : 1916년 오토재 중건 시 식사비 내역  
齋舍宗會時와 邑會時로 구분. 특히 邑會時 내역 상세
- ③ 五土齋草家役時文簿(박182) : 1916년 오토재 草家 공사 시 지출내역
- ③ 慶尙北道警務部長許可證 : 義城金氏五土齋重建時修單案(박141)에 포함  
된 문건  
1917년 오토재 중건을 위한 성금 모금을 허가하는 경찰국 문서
- ④ 五土齋舍用下文簿(박184) : 1918년~1920년 오토재 각종 지출내역  
특히 防川時用下, 齋沓執穗記, 測山時下記, 看坪時下記 등
- ⑤ 五土山採松時文簿(박185) : 1919년 오토산 소나무 벌목 시 경비내역  
술 담배 식사비 등을 날짜별로 정리. 수익금 및 경비내역
- ⑥ 蓋瓦下記(박194) : 1931년 7월 蓋瓦 시 지출내역
- ⑦ 賣松文簿(박186) : 1955년 1월 오토산 소나무 판매 시 경비내역  
賣松時滋用(지서와 임업계원 접대비 등), 松楸下山時下記 등
- ⑧ 飲福開座(박211) : 1979년 음복 시의 開座圖와 절차에 대한 내용

위의 ①⑤⑦은 오토산 경내의 재목을 벌목하여 매도하는 일과 관련된 각종 경비 지출과 수익금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②는 오토재 중건을 위한 宗會와 邑會 시의 식사비 지출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④는 제방 공사(防川), 위토의 작황 조사(執穗 혹은 看坪), 산지 측량(測山), ⑤는 기와 공사(蓋瓦) 등 특수 업무와 관련된 경비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고, ③은 경상북도 경찰국 경무부장이 오토재 중건을 위한 성금 모금을 허가한 허가증, ⑧은 음복할 때 獻官 祝官 執禮 掌議 기타 참사자 등의 자리 배치와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이런 문서는 모두 여타 재사나 향현사의 문건 가운데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오토재의 운영 상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물론, 宗會 邑會 採松 賣松 防川 執穗 看坪 蓋瓦 飲福 등 다양한 특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 Ⅲ. 주요 문서의 내용과 특징

오토재 문서 가운데 내용 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時到 展省錄 省墓錄 謁廟錄 參謁錄 尋齋錄 芳名錄 등 진민사와 오토재를 방문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時到란 특정 행사에 참여한 인물을 도착 일시별로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 향사에 참여한 인물 내역을 기록해 놓았다. 展省錄의 展省은 본래 ‘조상의 묘소를 살펴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로 묘향과 관련된 기록을 가리키는데, 오토재 문서에서는 이를 春享 秋享 墓享 등에 구분 없이 적용하였으며, 집사분정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謁廟錄과 參謁錄은 진민사를 배알한 인물 명단이고, 尋齋錄과 芳名錄은 오토재를 방문한 인물 명단인데, 이는 특정 행사와 무관하게 수시로 방문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란 점에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오토재 문서 가운데는 이처럼 방문 인물에 대한 기록이 時到 63건, 展省錄 8건, 省墓錄 1건, 謁廟錄 3건, 參謁錄 2건, 芳名錄 2건, 尋齋錄 1건, 도합 80여 건으로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하는데, 우선 그 내역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향사 참사 관련 문건 (68건)

省墓錄第二(박146) : 1772년~1776년. 10월 10일 묘향 참사자 명단

展省錄第三(박124) : 1754년~1771년. 2월 춘향과 8월 추향 참사자 명단

展省錄第四(박125) : 1804년~1844년. 10월 10일 묘향 참사자 명단<sup>14)</sup>

展省錄第六(박130) : 1894년~1899년.<sup>15)</sup> 2월 춘향의 집사분정 내역

墓祀時時到(박213) : 1896년. 10월 10일 묘향 참사자 명단

14) 1827년(丁亥)과 1843년(癸卯) 분은 누락되었다.

15) 이 문건은 연도별 간지 아래 누군가 서기 연도를 표기해 놓았다. 이에 근거하면 이 문건은 1954년~1959에 해당한다. 그러나 표지에 己未十月日補粧(1919)이라고 명시해놓은 점, 제일 앞에 기록한 甲午二月二十日 참사자 명단에 1911년 鎭民祠遺址碑閣丹獲記를 지은 19대손 金弼華가 亞獻官으로, 1915년 「五土齋舍講堂上樑文」을 지은 20대손 金鎭聲(1862~1933)이 陳設官으로 참여한 것 등을 참고하면 甲午가 곧 1894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건은 1894~1899의 집사분정을 기록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 展省錄第五(박126) : 1900년~1915년. 2월 춘향과 10월 10일 묘향 집사분정<sup>16)</sup>  
 乙卯春享時時到(박214) : 1915년.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春享時時到(박215) : 1917년.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展省錄第七(박127) : 1918년~1937년. 2월 춘향과 10월 10일 묘향 집사분정<sup>17)</sup>  
 秋享時時到(박216) : 1919년 10월 10일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10) : 1920년. 10월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壬戌二月春享時到(박217) : 1922년.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壬戌秋享時到(박216) : 1922년. 10월 10일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春享時時到(박219) : 1924년.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春享時時到(박220) : 1926년.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春享時時到(잔071) : 丙寅年(연대미상).<sup>18)</sup> 춘향 참사자 명단.  
 秋享時時到(박221) : 1928년. 10월 10일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展省錄第七之中(박128) : 1929년~1933년. 2월 춘향과 10월 묘향(추향) 집사분정<sup>19)</sup>  
 秋享時時到(박222) : 1931년. 10월 10일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時到(박230) : 연대미상(일제강점기 이전)<sup>20)</sup>. 제향 참여자 명단.  
 展省錄第八(박129) : 1948년~1956년. 2월 춘향과 10월 묘향(추향) 집사분정  
 展省錄第九(박131) : 1956년~1984년. 2월 춘향과 10월 묘향(추향) 집사분정<sup>21)</sup>  
 墓享時時到記(잔056) 1956년~1958년. 10월 10일 묘향(추향) 참사자 명단  
 秋享時時到(잔011) : 1957년. 10월 10일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秋享時時到(잔012) : 1958년(戊戌). 10월 10일 추향(묘향) 참석자 명단  
 時到記(잔013) : 1959년(己亥).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墓享時時到記(잔057) : 1959년(己亥) 10월 묘향(추향) 참사자 명단  
 墓享時時到記(잔058) : 1960년(庚子). 10월 묘향(추향) 참사자 명단  
 春享時時到(잔014) : 1960년(庚子).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春享時時到(잔015) : 1961년(辛丑).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16) 1908년~1911년분은 누락되었다.

17) 1920년 춘향, 1922년, 1925~1926년, 1929년~1934년분은 누락되었다.

18) 본문에 率奴란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丙寅年이 1926년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19) 展省錄第七(박127)의 누락 부분으로 판단되며, 1930년 묘향은 누락되었다.

20) 구체적 연대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명단 아래 率奴, 率奴子, 率二奴 등과 같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을 거느리고 다닌 일제강점기 이전 시대 문서로 판단된다.

21) 1962년~1970춘향, 1974묘향~1975묘향은 누락되었다.

- 時到(잔016) : 1962년(壬寅). 10월 추향 참사자 명단  
春享時時到(잔017) : 1962년(壬寅).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18) : 1963년(癸卯). 10월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19) : 1963년(癸卯).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20) : 1964년(甲辰). 10월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21) : 1964년(甲辰).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22) : 1965년(乙巳). 10월 추향 때 郡內 참사자 명단  
時到(잔023) : 1965년(乙巳). 10월 추향 때 郡外 참사자 명단  
時到(잔024) : 1965년(乙巳). 10월 추향 때 鄉中 참사자 명단  
時到(잔025) : 1965년(乙巳). 10월 추향 때 鄉中 참사자 명단  
時到(잔026) : 1966년(丙午).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27) : 1967년(丁未). 10월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28) : 1967년(丁未).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29) : 1968년(戊申).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墓享時時到記(잔059) : 1968년(戊申). 10월 묘향(추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30) : 1969년(己酉). 10월 추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31) : 1969년(己酉).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秋享時時到(잔032) : 1970년(庚戌). 10월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秋享時時到(잔033) : 1971년(辛亥). 10월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秋享時時到(잔034) : 1971년(辛亥). 10월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春享時時到(잔036) : 1972년(壬子).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35) : 1972년(壬子). 10월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秋享時時到(잔037) : 1973년(癸丑). 10월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春享時時到(잔038) : 1973년(癸丑).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時到記(잔039) : 1974(甲寅) 추향~1975(乙卯5)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40) : 1975년(乙卯) 10월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42) : 1976년(丙辰).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41) : 1976년(丙辰) 10월 추향(묘향) 참사자 명단  
時到記(잔044) : 1977년(丁巳)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五土齋時到錄(잔043) : 1977년(丁巳)추향~1979(己未)추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45) : 1980년(庚申). 2월 춘향 참석자 명단  
時到錄(잔046) : 1981(辛酉)춘향~1990(庚午) 춘향 참사자 명단

墓享時時到記(잔060) : 1982년(壬戌). 10월 묘향(추향) 참사자 명단  
時到記(잔047) : 1988(戊辰)춘향~1997(丁丑) 추향 참사자 명단  
五土齋時到錄(잔051) : 1997(丁丑)춘향~2000(庚辰) 춘향 참사자 명단  
時到(잔052) : 1998(戊寅) 2월 춘향 참사자 명단  
時到錄(잔053) : 2002추향~2003추향 참사자 명단  
時到錄(잔054) : 2004(甲申)~2007(丁亥)추향 참사자 명단

□ 알묘·방문 관련 문건 (11건)

謁廟錄第一(박145) : 1664년~1777년. 진민사 배알자 명단  
謁廟錄(박147) : 1762년~1797년 진민사 배알자 명단<sup>22)</sup>  
諸宗尋齋錄(박227) : 1924년~1931년 오토재 방문자 명단<sup>23)</sup>  
參謁錄(잔004) : 1988년~1992년. 진민사 알묘자 명단  
謁廟錄(잔005) : 1995년~2000년. 진민사 알묘자 명단  
參謁錄(잔006) : 2001년. 진민사 알묘자 명단  
芳名錄(잔007) : 2005년~2006년. 오토재 방문자 명단  
時到(잔049) : 1993년. 6월 총회, 8월 하계연수 참석자 명단  
時到(잔048) : 1992년~1995년. 오토재 방문자 명단  
芳名錄(잔050) : 1995년. 6월 총회, 8월 하계연수 참석자 명단 및 單子  
時到記(잔055) : 2007~2010년. 오토재 방문자 명단.

위를 보면 오토재 문서 가운데 방문 인물과 관련된 문건이 약 80건에 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이 중에서도 춘향 추향 묘향 등 특정 향사의 참사와 관련된 문건이 약 70건으로 단연 압도적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1700년대 중반부터 2000연대에 이르기까지 전 시기에 걸쳐 고루 충실하게 남아 있는데, 이는 진민사와 오토재의 핵심 기능이 바로 향사의 집행에 있었고, 향사 참사와 관련된 문건의 생산이 가장 활발하고 지속적이었음을

22) 내용상 「謁廟錄第一」의 누락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작성한 목록에는 “1924~1931년 오토재 방문자 명단”이라고 하였는데, 필자가 입수한 사진본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하지 않았다. 추후 재확인 필요하다.

24) 전체 80건 가운데 내용 파악이 어려운 「時到錄」(박230)을 제외하여 79건이 되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 관련 문건에 기록된 정보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다. 개인의 성명을 비롯하여 군수 찰방 생원 진사 幼學 등과 같은 신분, 都有司 副有司 有司 掌議 등과 같은 각종 齋任 관련 사항, 거주지, 자, 생년, 기타 특이사항 등이 그런 것인데, 문건마다 이런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성명의 위나 아래 부분에 선택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런 기록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할 경우 오랜 세월이 걸쳐 진민사와 오토재를 방문한 인물의 시기별 현황과 규모, 지역적 범위와 분포 상황, 성씨별 참사 실상과 역사적 변화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민사와 오토재의 성격, 향촌 사회에서의 기능과 영향력 등도 아울러 규명해 볼 수 있을 듯하였다.

특히 유의할 만한 점은 이런 문건에 기록된 齋任 관련 사항이다. 재임이란 일정 기간 오토재 운영의 책임을 맡아 향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재정 관리 등을 주도한 도유사 유사 부유사 장의 등과 같은 임원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시기별 오토재 운영의 실질적인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런 재임 관련 사항을 제각각 다른 시기의 다른 문건에 다양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 ① 「展省錄第三」(박124), 1754년(甲戌) 八月二十日  
 金字謙, 金漢采 都有司, 申洛瑞, 申應杓, 金必鉉, 金應龍 有司, 金熙麟,  
金弘溥 有司, 金汝鉀, 戶長 金亨道
- ② 「展省錄第三」(박124), 1765년(乙酉) 八月二十七日(中丁以國忌退行)  
都有司 申應聘, 有司 金熙麟, 齋員 申應杓 朴沈 金弘溥 申維德 金命宗(固阜),  
副有司 金甲粹, 戶長 吳一復
- ③ 「省墓錄」(박146), 1772년(壬辰) 十月三十日 修墓時執事<sup>25)</sup>  
金相玉 欽夫 庚寅 安東 都有司, 金龍瀾 仲見 己酉 青松 齋有司  
 李宜泰 大來 辛巳 本縣, 李宜華 國俊 癸未 .....중략.....  
 李思說 學初 庚申, 金就道 極形 丁亥 副有司
- ④ 「展省錄第四」(박125), 1808년(戊辰) 十月十日 墓祀時執事分定記

25) 성명 다음 부분의 기록은 字, 생년, 거주지, 재임 순이다.

**初獻 金熙相(以都有司 有故不參回去 金瑊 初獻代行), 亞獻 金宗謙,**

**終獻 金泰熙 齋有司, 陳設 金復熙 金琬, 執禮 金鳴鐸, 金舜熙,**

金正熙, 金秘振, 金鳳瑞. 際. **副有司 金點福**

⑤ 「墓祀時時到」(박213), 1896년(丙申) 十月 日

**都有司 金承洛(金溪), 掌議 金峻鎮(青松), 金龍洙, 金性利(中沙), 金弼臣,**

金弼文(開日) ...후략..., **副有司 金得河(連豐), 金基洛, 金俊模(全豐) ...후략...**

⑥ 「春享時時到」(박220), 1926년(丙寅) 二月十五日

**金〇〇 齋長(安東 芝禮), 金宅浚 掌議(井邑 道溪), 金基洛(青松 呂岩),**

金東煥(率奴, 安東 芝禮), 金天浩(率奴, 青松 道洞), 金鎮恒(安東 川前)

위는 1700년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展省錄」 「省墓錄」 「時到」 등 제각각 다른 문건의 내용 일부를 적시해 본 것이다. 이를 보면 시기가 다르고 문건의 종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도유사 유사 장의 부유사 등과 같은 재임 관련 사항을 함께 기록해 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기에 따라 재임의 종류나 구성원수에 일정한 변화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는데, 이를 따로 정리한 몇 건의 「五土齋舍任案」과 함께 검토할 경우, 오토재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 임원의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나 더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1800년대 말부터 8월 추향 관련 문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700년대 후반 2월 춘향과 8월 추향 참사자 명단을 함께 기록한 「展省錄第三」(박146), 1800년대 전반 10월 묘향 참사자 명단을 따로 기록한 「展省錄第四」(박1125) 등을 보면, 1800년대까지는 진민사의 2월 춘향과 8월 추향, 오토재의 10월 묘향이 별도로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1800년대 말기의 「展省錄第六」부터는 2월 춘향과 10월 묘향 관련 문건만 있고 8월 추향 관련 문건이 없다. 「秋享時時到」 등 제목에 추향을 명시한 문건이 여럿 있지만 모두 10월 묘향을 가리킬 뿐이었다. 이것은 1870년경 진민사를 오토재 경내로 이전한 이후 진민사의 8월 추향을 폐지한 결과로 보이는데, 「五土山別廟享禮時事例」(박122) 앞부분에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있다.

“진민사가 훼손된 후 (오토재로) 옮겨 모시는 일이 너무 구차하고 갑작스러워 안타까웠는데, 사당 문이 한번 닫히고는 제향을 오래 동안 빠트렸으니, 이는 진실로 후손들이 함께 개탄하는 바였다. 지난해부터 여러 중인들이 의견을 모아 부득이 오토산 원편 松楸를 떼어 팔아서 약간의 위토를 마련하고(소나무 값과 전답 값은 모두 그해 文簿에 있다) 해마다 한번 향사할 계획을 하였는데, 역량이 넉넉지 못하고 법도가 미비하다. 그럼에도 다만 향사의 형식이라도 남겨둔다는 뜻을 담아 후일을 기다린다.”<sup>26)</sup>

위의 예문을 보면 1870년경 의성 읍내에 있던 진민사가 훼손될 상황이 되자 이를 경황없이 오토재 경내에 별묘 형식으로 이관하였고, 이후 한 동안 제향을 모시지 못하였으며, 1890년에 와서야 비로소 의성김씨 집안사람들이 뜻을 모아 오토산 원편 소나무를 떼어 팔아 位土를 마련하여 1년에 한 번씩 제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월 춘향과 8월 추향 중 오토재의 10월 묘향과 중복성이 있는 8월 추향을 폐지하고 2월 춘향 한 번만 시행했을 터인데, 그래서 8월 추향 관련 문건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다. 이것은 위의 예문에서 “법도가 미비하다” “향사의 형식이라도 남겨두려는 뜻을 담아 후일을 기다린다.”고 한 것처럼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오토재가 향현사의 기능을 함께 맡음에 따라 향사의 방식까지 일부 재조정하였음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로 특별히 유의할 가치가 있다.

오토재 문서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都錄 文簿 田畚案 秋收記 冠錢收捧錄 冠義金領收冊 出義別錄 修單案 金錢出納簿 收支一覽簿 收支記 下記 등으로 명명한 각종 재정 관련 문서들이다. 都錄이란 특정 사항을 함께 모아 기록한 장부라는 뜻인데, 오토재 문서에서는 예외 없이 모두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지칭하였다. 文簿란 글자

26) 「五土山別廟享禮時事例」(박122), “鎮民祠 自毀撤之後移奉事 惜已極苟率 而廟門一閉 香火久闕 此固後承之所共齋○者也 自去年 諸宗合議 不得已斥賣本山左偏松楸 買得若干土田(松價及杏價 俱在當年文簿) 爲歲一祿薦之計 而事力不敷 儀文未備 然只以寓魯廟存羊之義 以俟後日云爾”

그대로 문서 장부라는 뜻인데, 오토재 문서에서는 都錄과 거의 차이가 없는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冠錢<sup>27)</sup> 冠義金 出義 獻誠 등은 모두 성금을 가리키고, 修單案은 성금 모금을 위해 따로 작성한 지역별 첨사공 자손 명단과 모금액에 대한 기록이다. 下記란 用下記의 줄임말로 지출 내역에 대한 기록이란 뜻이다. 그래서 지출 주체에 따라 官下記(관청) 洞中下記(마을) 族下記(집안) 등으로, 지출 내역에 따라 錢下記(돈) 穀下記(곡물) 食(床)下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오토재 문서에서는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 내역을 함께 기록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타 田畝案은 위토 구입 내역을, 秋收記는 위토의 추수 내역이나 임대료(賭租) 수입 내역을, 金錢出納簿 收支一覽簿 收支記 등은 연도별 혹은 사안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오토재 문서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재정 관련 문건이 약 69건 가량이나 되는데, 그 내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都錄(박155) : 1849년(己酉)<sup>28)</sup> 11월. 오토재 秋收 및 지출내역
- 五土山墓位田畝案(박196) : 1890년~1910년. 오토재 墓位 전답 취득내역
- 春享時下記(박197) : 1896년(丙申) 3월. 오토재 추수 및 춘향 지출내역.<sup>29)</sup>
- 五土齋舍都錄(박152) : 1906년(丙午) 10월. 추수와 金錢 수입 및 지출내역
- 五土齋舍都錄(박153) : 1907년(丁未) 10월. 추수와 金錢 수입 및 지출내역
- 五土齋舍都錄(박154) : 1908년(戊申) 10월. 추수와 金錢 수입 및 지출내역
- 秋享時文簿(박175) : 1909년(己酉)<sup>30)</sup> 10월. 오토재 추수 및 추향 지출내역

27) 冠錢이란 冠者(성인)의 誠金이란 의미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확인해보지 못하였다.

28)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작성한 목록에는 己酉年을 1909년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1909년에는 이와 내용이 판이한 「秋享時文簿」(목록71)가 별도로 있다. 그리고 이 문건 秋收記에 기록된 전답 내용이 1848년 작성된 「五土山齋舍事例」(목록30)에 수록된 ‘本所田畝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 이 문건의 己酉年은 1849년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29) 문서 뒷부분에 別所秋收記가 포함되어 있다

30) 이 문건에 명시된 掌議 金永和가 1904년 鎭民祠遺墟碑閣丹青 때 수고한 사람 명단에 들어 있고, 金溪輝가 1911년 鎭民祠遺址碑閣重修 때 都監을 맡은 사실로 보아 己酉年이 1909년이 분명한 듯하다.

- 秋享時文簿(박176) : 1910년(庚戌) 10월. 오토재 추수 및 추향 지출내역  
春享時文簿(박177) : 1911년(辛亥) 2월. 오토재 춘향 지출내역. 秋收記 포함  
五土齋舍秋享時文簿(박178) : 1911년(辛亥) 10월. 추수 및 추향 지출내역  
春享時文簿(박173) : 1912년(壬子) 2월. 춘향 시 금전 지출내역<sup>31)</sup>  
春享時文簿(잔69) : 壬子年(1912년 이전). 춘향시 지출내역<sup>32)</sup>  
土齋秋享時文簿(잔70) : 癸丑年(1913년 이전). 추향시 지출장부<sup>33)</sup>  
土齋秋享時文簿(박174) : 1913년(癸丑) 10월. 추수 및 추향 지출내역  
春享時下記(박190) : 1914년(甲寅) 2월. 춘향 시 지출내역  
五土齋秋享時文簿(박179) : 1914년(甲寅) 10월. 추수 및 지출내역  
土齋松楸發賣時(박199) : 1915년(乙卯) 송추 매도 시 경비 내역. 春享 포함  
五土山秋享時文簿(박180) : 1915년(乙卯) 10월. 추수 및 추향 지출내역  
五土齋舍文簿(박181) : 1916년(丙辰) 2월. 춘향 시 지출내역  
五土齋重建時都錄(박158) : 1916년(丙辰) 6월. 오토재 중건 시 수입 지출내역  
五土山齋舍重建時食下記(박138) : 1916년. 오토재 중건 시 식사비 내역<sup>34)</sup>  
五土齋草家役時文簿(박182) : 1916년(丙辰) 2월. 오토재 초가공사 지출내역  
五土山齋舍重建時錢下記(박135) : 1916년(丙辰) 3~4월. 재사 중건 경비 내역  
五土山齋舍重建時出義別錄(박136) : 1916년(丙辰) 4월. 재사 중건 성금 내역  
五土山齋舍重建時冠錢收捧錄(박137) : 1916년(丙辰) 4월. 재사 중건 성금 내역<sup>35)</sup>  
五土齋重建時金錢出納簿(박191) : 1916년(丙辰). 재사 중건 성금 및 지출내역  
收支一覽簿(박198) : 1916년(丙辰). 재사 중건 시 地域별 성금 및 지출내역  
五土山秋享時文簿(박181) : 1916년(丙辰) 10월. 추수 및 추향 지출내역  
食床下記冊(박192) : 1917년(丁巳). 춘향 시 식사비 내역<sup>36)</sup>  
義城金氏宗中冠錢收納冊(박200) : 1917년 5~7월. 재사 중건 성금 내역<sup>37)</sup>  
五土齋重建時冠義金領收冊(박202) : 1917.7.14.~1918.9.17. 성금 내역

31) 이 문건은 지출 내역을 祭需條, 供土條, 祭需米條 등으로 구분 정리한 것이 특징적이다.

32) 돈을 兩과 錢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1912년(壬子) 이전 문건으로 판단된다.

33) 돈을 兩과 錢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1913년(癸丑) 이전 문건으로 판단된다.

34) 齋舍宗會時와 邑會時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히 邑會時 내역이 상세하다.

35) 支派 地域별 고액의 공동 성금 납부 내역을 기록하였다.

36) 2월 13일 種松時, 3월 13일 宗會時, 8월 28일 기타 지출 등을 포함하였다.

37) 支派 地域별 고액 성금 내역을 금액, 지역, 대표자, 날짜순으로 기록하였다.

- 義城金氏五土齋重建時修單案(박141) : 1917년. 자손 성금 납부내역<sup>38)</sup>  
 五土齋重建時修單案(박141) : 1917년. 자손 성금 납부 명단과 내역<sup>39)</sup>  
 五土齋文簿(박183) : 1917년(丁巳) 10월. 오토재 추수 및 지출내역  
 五土齋重建時食床下記(박139) : 1917년 7월~1918년 8월. 월·일별 식비내역  
 五土齋重建時雜用文簿(박140) : 1917년 7월~1918년 8월. 월·일별 잡비내역  
 五土齋重建時修單案(박141) : 1918년. 자손 성금 납부 명단과 내역<sup>40)</sup>  
 五土齋舍用下文簿(박184) : 1918년~1920년. 오토재 각종 행사 지출내역<sup>41)</sup>  
 五土山採松時文簿(박185) : 1919년(己未). 오토산 소나무 벌목 지출내역<sup>42)</sup>  
 享祀時下記(박203) : 1921년(辛酉) 10월. 추수 및 추향 시 지출내역  
 出納文簿(박204) : 1922년(壬戌). 家役所의 금전 출납 장부  
 五土山齋舍秋收記(박193) : 1926년(丙寅). 추수 및 墓享 지출내역  
 蓋瓦下記(박194) : 1931년(辛未) 7월. 蓋瓦 지출내역  
 五土山齋舍秋收記(박195) : 1933년(癸酉). 추수 및 墓享 지출내역  
 五土齋春享時都錄(박157) : 1937년(丁丑) 2월. 춘향 시 수입과 지출내역  
 五土齋都錄(박158) : 1937년(丁丑) 10월. 추수 및 금전 수입과 지출내역  
 五土齋都錄(박160) : 1951년 10월~1952년 2월. 추수 및 금전 수입과 지출내역  
 五土齋舍都錄(박161) : 1952년 10월~1953년 2월. 추수 및 금전 수입과 지출내역  
 五土齋都錄(박162) : 1953년 10월~1954년 2월. 추수 및 금전 수입과 지출내역  
 廟宇講堂修理時收支記(박143) : 1955년. 묘우 강당 수리 시 금전 수입 지출내역

---

38) 영천, 경산, 경주, 연일, 울산지역 관련이다. 수납방법을 안내한 通文과 慶北警務部長의 허가증이 첨부되었고, 개인별 주소, 代數, 성명, 자, 생년, 금액 순으로 기록하였다.  
 39) 충청도, 전라도, 함경도, 강원도, 서울지역 관련이다. 수납 방법을 안내한 通文이 있고, 기록 방법은 위의 박141과 동일하다. 그러나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수금은 하지 못한 듯하다.  
 40) 황해도, 평안남도, 경기도지역 관련이다. 수납 방법을 안내한 通文이 있고, 기록 방법은 위의 박141과 동일하다. 그러나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수금은 하지 못한 듯하다.  
 41) 春享時用下記, 防川時用下, 廟位重修時用下, 齋杳執穗記, 墓享時用下記, 春享時文記, 測山時下記, 看坪時下記, 秋收記 등으로 구분 정리되어 있다.  
 42) 뒷부분에 採松 수익금과 경비 내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 賣松文簿(박186) : 1955년(乙未) 1월. 오토산 소나무 판매 시 경비내역<sup>43)</sup>  
春享時文簿(박187) : 1955년(乙未) .추수 및 춘향 시 지출내역<sup>44)</sup>  
五土齋修理雙方契約書(박205) : 1955년(乙未). 오토재 수리 계약문서  
五土齋都錄(박163) : 1955년(乙未) 10월. 추수 및 금전 수입과 지출내역  
春享時文簿(박188) : 1956년(丙申) 2월. 춘향 시 수입과 지출내역<sup>45)</sup>  
五土齋都錄(박164) : 1956년 10월~1958년 2월. 추수 및 지출내역  
五土齋都錄(잔62) : 1958년(戊戌). 10월 오토재 수입 지출내역  
五土齋都錄(박166) : 1959년(己亥) 2월. 오토재 이월금과 지출내역  
五土齋都錄(박165) : 1959년(己亥) 10월. 오토재 추수 및 지출내역  
五土齋都錄(잔65) : 1960년(庚子). 2월 춘향 시 수입 지출내역  
五土齋都錄(박167) : 1960년(庚子) 10월. 추수 및 금전 수입과 지출내역  
五土齋都錄(박168) : 1961년 10월~1962년 2월. 추수 및 금전 수입과 지출내역  
五土齋秋享時都錄(박169) : 1962년 10월~1963년 2월. 추수 및 금전 수입과 지출  
五土齋都錄(박170) : 1963년 10월~1964년 2월. 추수 및 금전 수입과 지출내역  
賣契契約書(박208) : 1963년. 의성군 토지 120필지의 매매계약서  
五土齋都錄(박171) : 1964년(甲辰). 추수 및 지출내역  
溜池工事簿記(잔61) : 1966년~1967년. 오토재 연못조성 시 수입 지출내역  
五土齋都錄(박172) : 1983년(癸亥). 오토재 추수 및 지출내역  
五土齋重建獻誠錄(잔67) : 1987년~1988년. 오토재 중건 시 성금 기탁자 명단

위를 보면 오토재 문서 가운데 都錄 22건<sup>46)</sup>, 文簿 22건<sup>47)</sup>, 下記 8건, 冠錢 冠義金 出義錄 獻誠錄 5건, 修單案 3건, 秋收記2건, 收支記2건, 契約書 2

43) 賣松時滋用, 松楸下山時下記, 廟宇及講堂修理時入金記 등이다.

44) 別所秋收記와 춘향 시 지출내역을 포함하였다.

45) 移越 곡물과 穀用, 금전 수입과 지출 내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46) 도록은 전체 24건인데, 1959년의 춘향과 관련된 「五土齋都錄」(잔63), 춘향과 관련된 「五土齋都錄」(잔64) 2건이 중복되어 이를 제외시킨 결과 22건이 되었다.

47) 문서 제목에 文簿로 분명히 명시한 것은 19건인데, 1915년(乙卯) 土齋松楸發賣時(박199)를 여기에 편입시켜 20건이 되었다.

건, 田畵案 1건, 金錢出納簿 1건, 簿記 1건 등 재정 관련 문건이 전체 약 69건에 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정 관련 문건은 위와 같은 별건 문건에 그치지 않는다. 1848년 「五土山齋舍事例」(박123)에 첨부된 本所田畵案과 五土山齋舍田畵案見在記(1872), 1896년 「墓祀時時到」(박213)에 첨부된 本所秋收記와 別所文簿, 1915년 「乙卯春享時時到」(박214)에 첨부된 下記 등 여타 문건에 첨부된 것도 적지 않으며<sup>48)</sup>, 이를 모두 감안하면 75건이 넘는다. 양적으로 방문 인물 관련 문건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재정 관련 문건은 시기적으로 1910년 이전 문건이 7건, 1910년~1945년 일제강점기 문건이 39건, 1945년 광복 이후 문건이 23건으로, 일제강점기 문건이 가장 많다. 그 중에도 1915년 화재 이후 오토채를 증건을 할 당시 작성한 문건이 약 18건으로 특별히 두드러지는데, 이를 통해 1916년부터 수년간 오토채 증건을 위해 전국 각지의 자손들이 대대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였던 사실, 지역별 개인별 각종 성금의 구체적 납부 내역, 월·일별 식비와 잡비 지출 내역 등을 매우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재정 관련 문건은 일차적으로 오토채의 기본 재산, 연도별 수입과 지출 내역, 정기적인 향사의 규모와 비용, 중건 신축 蓋瓦 별목 같은 각종 부정기적 사안의 비용 등 오토채 운영의 물적 기반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라는 점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물적 기반과 다른 차원의 여러 부가적인 정보가 많다. 예컨대 향사와 관련된 문건의 경우, 제수물품의 종류, 향사를 주관하는 주요 임원의 예우, 향사 참사자의 접대 등에 대한 정보가 여럿 있으며, 공사와 관련된 문건의 경우에도 공사 현장을 왕래한 각 지역 임원의 여비, 공사 진행에 소요된 밥값 술값 담배값 등 각종 잡비 지출 내역, 기타 하인이나 말에 대한 지원 사항 등 흥미로운 정보가 대단히 많이 들어 있다.

48) 이 외에 1890년~1894년 「五土山別廟享禮時事例」(박122)에 첨부된 秋收記 下記 文簿, 1917년 「春享時時到」(박215)에 첨부된 下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① 1937년 「五土齋春享時都錄」(박157)), 用下

2환15전:소고기, 2환80전:常魚4마리(尾), 2환55전:청어2두릅(級), 2환50전:북어2띠(桴), 30전: 김3첩(帖), 40전:두부, 70전:콩, 50전:방계, 30전:무, 42전:계란, 10전:남포심, 18전:나무젓가락2타스(打), 26전:과, 2환30전:소반 1대(竹), 50전:벼루통, 1환38전:담배, 16전:소주, 1환10전:술 반말(半斗), 2환42전:齋長 장의 여려분이 읍내에 올 때, 1환60전:시장 볼 때 밥값(市饒), 3환79전:임야세금 2기분, 70전:신·구 齋長 모임 때(川前), 80전:2월 천전 금계에 통고할 때 하인 여비, 1환20전: 재장 마삿(馬賁), 5환:재장 거마비와 세의(歲儀), 6환:두 임원 거마비, 2환:두 임원 여비, 1환20전:두 임원 세의, 80전:두 임원 신 값(履價), 2환38전:치선동 地稅 2기분, 1환60전:초청 손님 여비, 합계 47환9전<sup>49)</sup>

② 1916년 「五土山齋舍重建時錢下記」(박135) 用下(4월)

**11일.** 1냥3전7푼 3전2푼 厚紙1束5장, 7전6푼 印札紙, 1전6푼 草筆 1자루, 1전 봉투지. **22일.** 7전 담배, 7전6푼 술(여러분). 23일. 4전 지레 하인 귀가 여비, 5전 구미 임원 귀가 여비, 5전 금계 임원 귀가 여비, 3냥 신당 임원 왕래 여비 및 편자, 8전 망친 奴馬 귀가 여비, 4냥 금곡 임원 왕래 여비 및 편자, 7전5푼 여암 임원 귀가 여비, 4전 술값, 3전 3월 술값 값음, 1전5푼 망친 하인 짚신 1켄레, 5전 각처 하인 술값, 7전2푼 술값(신청서 쓸 때). **24일.** 6전 아침 술값, 4전 금곡 임원 술값(돌아갈 때 여러분), 8전5푼 지레 임원 약값, 2냥5전 草紙5권, 7전5푼 葉書紙10장, 5전8푼 낮 술값, 1전5푼 하인 점심 값. **25일.** 3전6푼 아침 술값, 1냥 도장2개, 7전2푼 낮 술값. **26일.** 1냥2전3푼 술 담배 값, 2전 개일 임원 점심 값, 3전6푼 술값. **27일.** 2전4푼 아침 술값, 3전3푼 하인 아침 점심값, 1전8푼 술값, 5전 영주 한 임원 귀가 여비, 5전 담배. **28일.** 4전 아침 술값, 3전7푼 하인 아

49) 「五土齋春享時都錄」(박157)), 用下조, “二兩十五錢 黃肉, 二圓八十錢 常魚四尾, 二圓五十五錢 靑魚二級, 二圓五十錢 北魚二桴, 三十錢 海衣三帖, 四十錢 造泡, 七十錢 藿, 五十錢 小蟹, 三十錢 菁根, 四十二錢 鷄卵, 十錢 南泡心, 十八錢 木箸二打, 二十六錢 葱, 二圓三十錢 盤一竹, 五十錢 硯匣, 一圓三十八錢 煙草, 十六錢 燒酒, 一圓十錢 酒半斗, 二圓四十二錢 齋長及掌議諸員邑來時, 一圓六十錢 市饒, 三圓七十九錢 林野稅 二期分, 七十錢 新舊齋長會時 川前, 八十錢 二月川前金溪通告時下人行資, 一圓二十錢 齋長馬賁, 五圓 齋長車費及歲儀, 六圓 兩任車費, 二圓 兩任行資, 一圓二十錢 兩任歲儀, 八十錢 兩任履價, 二圓三十八錢 致仙洞地稅二期分, 一圓六十錢 出文賓行資, 計四十七圓九錢”

침 점심값, 1냥5전9푼 여러분 점심값, 4전3푼 술값. 29일. 3전4푼 아침 술값, 6전7푼 오전 술값(청원할 때), 9냥 말죽 30통(전수합계), 1냥1전2푼 천전 지레 귀가 시 여러분 술값, 2냥5전 지레 임원 왕래 여비 및 편자, 2냥5전 천전 임원 왕래 여비 및 편자, 2전4푼 밤 술값, 3전6푼 오후 술값, 1냥 대서인 수고료(미루어 있음), 5냥6전 말죽12통, 2냥5전 망천 임원 왕래 여비, 1냥5전 두동 임원 왕래 여비, 27냥5전 代書人 연간 수고료. 이상 합계 85냥3전9푼<sup>50)</sup>

①은 1937년 춘향 때의 지출 내역이고, ②는 1916년 오토재를 증건할 때 그 해 4월분에 해당하는 지출 내역이다. ①을 보면 춘향 때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는 물론, 제수품의 종류와 규모, 임원의 歲儀와 車馬費, 초청 빈객에 대한 예우 등 향사와 관련된 부가적인 내용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②도 마찬가지다. 4월 한 달 동안 공사에 소요된 물품, 현장을 왕래한 임원의 여비, 代書人 하인 등에 대한 지원, 술값 담뱃값 신값 약값 같은 각종 잡비 등 공사 관리에 필요한 여러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 재정관련 문서는 이처럼 오토재의 물적 기반을 파악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운영의 구체적 실상을 이해하는데 요긴한 각종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다.

50) 「五土山齋舍重建時錢下記」(박135), 用下(4월), “四月十一日 一兩三錢七分 三錢二分 厚紙一束五丈, 七錢六分 印札紙, 一錢六分 草筆一柄, 一錢 封套紙. 廿二日. 七錢 草, 七錢六分 酒僉員. 廿三日. 四錢 知禮下人歸資, 五錢 龜尾任員歸資, 五錢 金溪任員歸資, 三兩 新塘任員來往資及馬鐵, 八錢 輞川奴馬歸資, 四兩 金谷任員來往資及馬鐵, 七錢五分 呂岩任員歸資, 四錢 酒下, 三錢 三月酒下推報, 一錢五分 輞川下人草鞋一件, 五錢 各處下人酒下, 七錢二分 酒下 申請書寫時. 廿四日. 六錢 朝酒下, 四錢 金谷任員酒下 歸時僉員, 八錢五分 芝禮任員藥價, 二兩五錢 草紙五卷, 七錢五分 葉書紙十丈, 五錢八分 午酒下, 一錢五分 下人午料. 廿五日. 三錢六分 朝酒下, 一兩 圖章二介, 七錢二分 午酒下. 廿六日. 一兩二錢三分 酒草下, 二錢 開日任員午料, 三錢六分 酒下. 廿七日. 二錢四分 酒下朝, 三錢三分 下人朝午饒, 一錢八分 酒下, 五錢 榮川一員歸資, 五錢 草. 廿八日. 四錢 酒下朝, 三錢七分 下人朝午饒, 一兩五錢九分 僉員午饒, 四錢三分 酒下. 廿九日. 三錢四分 朝酒下, 六錢七分 午前酒下 請願時, 九兩 馬粥三十桶 前後合, 一兩一錢二分 川前芝禮歸時僉員酒下, 二兩五錢 芝禮任員來往資及馬鐵, 二兩五錢 川前任員來往資及馬鐵, 二錢四分 夜酒下, 三錢六分 午後酒下, 一兩 代書人勞下推報, 五兩六錢 馬粥十二桶, 二兩五錢 輞川任員來往資, 一兩五錢 杜洞任員來往資, 二十七兩五錢 代書人年料. 已上合八十五兩三錢九分”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齋任案과 執事分定이다. 재임은 都有司 齋有司 副有司 有司 掌議 등 일정 기간 오토제 운영을 담당한 임원을 가리킨다. 집사분정은 향사가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初獻 亞獻 終獻 祝 陳設 奉香 奉爐 司罇 奉爵 奠爵 奉盤 등 특정 업무를 맡아 수행한 집사자의 업무분담을 가리킨다. 따라서 재임과 집사야 말로 오토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역이라 하겠는데, 바로 이런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적지 않았다. 재임의 경우 時到 省墓錄 등 여타 문건에 병기된 예가 많음을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재임 관련 사항만 따로 모아 정리한 齋任案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집사분정에 대한 기록은 展省錄이 대표적인데, 현존하는 전성록 8종 중 7종이 모두 이를 정리한 것이었으며,<sup>51)</sup> 1회용 집사분정도 더러 발견되었다.

□ 종합 정리된 齋任案과 執事分定 (11건)

五土齋舍任案(박148) : 1846년~1915년 오토제 재임 명단

五土齋舍任案(박149) : 1917년~1947년 오토제 재임 명단

五土齋任案(박150) : 1948년~1989년 오토제 재임 명단

任司錄(잔67) : 1990년~2013년 오토제 재임 명단

展省錄第四(박125) : 1805년~1844년. 10월 10일 묘향 집사분정<sup>52)</sup>

展省錄第六(박130) : 1894년~1899년. 2월 춘향 시 집사분정

奠省錄第五(박126) : 1900년~1915년. 2월 춘향과 10월 10일 묘향 집사분정<sup>53)</sup>

奠省錄第七(박127) : 1918년~1937년. 2월 춘향과 10월 10일 묘향 집사분정<sup>54)</sup>

奠省錄第七之中(박128) : 1929년~1933년. 2월 춘향과 10월 묘향(추향) 집사분정<sup>55)</sup>

奠省錄第八(박129) : 1948년~1956년. 2월 춘향과 10월 묘향(추향) 집사분정

51) 전성록 8종 중 「展省錄第三」(박124)에는 집사분정 기록이 없다. 1754년부터 1771년까지 2월 춘향과 8월 추향 참사자 명단만 기록하였을 뿐이다.

52) 1827년(丁亥)과 1843년(癸卯) 분은 누락된 상태이다.

53) 1908년~1911년분은 누락되었다.

54) 1920년 춘향, 1922년, 1925~1926년, 1929년~1934년분은 누락되었다.

55) 展省錄第七(박127)의 누락 부분에 해당하며, 1930년 묘향은 누락되었다.

奠省錄第九(박131) : 1956년~1984년. 2월 춘향과 10월 묘향(추향) 집사분정<sup>56)</sup>

□ 개별 기록의 齋任案과 執事分定 (9건)

備三望(박151) : 1984년. 1977년~1984년 五土齋首任 三望 명단 초본

備三望(박151) : 1989년. 1977년~1989년 五土齋首任 三望 명단<sup>57)</sup>

詹事公神道立石告由時執事(박209) 1924년(甲子) 신도비 立石 告由 때 집사 분정<sup>58)</sup>

詹事公神道立石告由時爬錄(박132) 1924년 신도비 입석 고유 때 집사분정.<sup>59)</sup>

秋享時執事(박212) 1981년(辛酉) 추향 시 집사분정<sup>60)</sup>

五土齋任案(박150) 별첨 : 1988년 鎭民祠重建還安告由時와 秋奠의 집사분정 2건  
1989년 春奠과 秋奠의 집사분정 2건

위는 재임과 집사분정에 대한 문건만 정리해본 것인데, 여러 해 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11건, 首任 관련 사항만 따로 정리한 것이 2건, 기타 개별적인 집사분정 7건, 도합 20건 가량이다. 위의 문건을 살펴보면, 재임의 경우 1846년부터 2013년까지 내역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문건에 병기된 것을 참고하면 1846년 이전 내역도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으며, 의성김씨 집안의 대표적 학자였던 西山 金興洛(1881년), 拓庵 金道和(1889년), 重齋 金樛(1966년) 같은 인물이 두루 도유사를 맡았던 역사적 사실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집사분정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재임만큼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기(특히 1800년대 후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유사한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충실하다고 할만하다. 두 종의 문서는 이렇듯 오토재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

56) 1962년~1970춘향, 1974묘향~1975묘향은 누락되었다.

57) 「備三望」 2건의 1977년~1984년은 연도와 내용이 모두 중복된다.

58) 1918년~1937년 집사분정을 기록한 「奠省錄第七」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59) 「詹事公神道立石告由時執事」(박209)와 동일한 내용의 이본이다.

60) 1956년~1984년 집사분정을 기록한 「奠省錄第九」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친 연속적인 기록인 만큼 이를 통해 직종과 구성원의 역사적 변천상까지 엿볼 수 있는데, 재임의 경우를 간단히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3 : 재임의 직종과 구성원 변천

	都 有司	別 有司	副 有司	有 司	掌 議	別所 掌議	理 事	議 員	掌 財	句 管
1845년	1명		1명		1명					
1896년	1명		1명		2명	1명				
1910년	1명				2명					
1937년	1명	2명			2명					
1939년	1명	1명			1명		1명	2명		
1948년	1명				2명					
1961년	1명				2명				2명	
1972년	1명				2명					
1975년	1명				5명					
1981년	1명			5명						
1987년	1명			4명						2명

표3을 보면 재임의 직종과 구성원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800년대에는 도유사 부유사 장의 각 1명이 기본이었지만, 1910년 이후 부유사 직종이 폐지되었고, 1937년 이후에는 일정기간 별유사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39년 무렵에는 이사와 의원 제도가 신설된 사실, 1961년 掌財 제도가 등장한 사실, 기타 각 직임을 맡은 사람 수가 일정하지 않은 사실 등이 모두 그런 것이다. 이처럼 오토제의 재임안과 집사분정은 장기간 지속적인 기록을 통해 그 동안 학계에서 거의 주목하지 못하고 있던 재사 직임의 종류와 구성원 수의 역사적 변천상은 보여준다는 점에 또 다른 가치가 있다.

네 번째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節目 事例 議事錄類이다. 節目이란 條目과 비슷한 말로, 특정 기관 단체의 운영 원칙이나 규정을 조목별로 나누어 기록한 문건을 가리킨다. 事例란 이전에 시행한 적이 있는 ‘일의 본보기’란 뜻으로, 법률이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특별히 참

고하기 위해 작성한 일종의 지침서이다. 의사록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의 일종인데, 여기에 공적으로 등재한 각종 결정 사항은 당연히 규정이나 지침에 준하는 효력을 가졌다. 따라서 이런 문건은 모두 특정 기관 단체의 운영을 위한 핵심 규정과 지침을 담은 것이란 점에서 특별히 유의할 가치가 있는데, 오토재 문서 가운데는 이런 종류의 문서가 7건 정도 있다.

- ① 五土山齋舍事例(박123) : 1848년. 오토재 운영 관련 세부규정  
位畚 수입, 제향 비용, 제수품목과 규모, 齋員 下丁 齋直 산지기 식모 등 종사원의 수고료 歲儀 노자 산정 방법, 시장 볼 때 유의 사항, 남는 제수품 처리 방법 등
- ② 五土山別廟享禮時事例(박122). 1891년. 별묘(진민사) 향사 관련 세부규정  
향사일 확정, 제수품목, 齋儒 선임 방법, 참사자 비용 부담 방법, 도유사의 예우, 추수 내역 정리와 점검, 기타 유의사항 등
- ③ 節目(박126) : 1910년. 오토재 운영 관련 세부규정<sup>61)</sup>  
운영비 절약, 松楸 禁護와 판매 금지, 偷埋 발생 시 대처 방법, 別廟 도유사와 장의 선임 방법, 장의의 나이 제한, 향사 불참자에 대한 처벌 등
- ④ 節目(박111) : 1915년. 오토재 증건을 위한 비용 수금 방법과 절차 규정<sup>62)</sup>  
개인별 부담액, 수금을 위한 자손록 작성, 미납자에 대한 대처, 지역별 모금액 전달 방법, 수금 책임자 선정, 고액 부담자 기록 방법 등
- ⑤ 五土齋舍更張節目(박111) : 1915년 화재 후 향사 시행 관련 변경사항 규정<sup>63)</sup>  
떡쌀(餅米)과 祭酒米 수량, 酒稅 부담 방법, 희생용 소와 가축 처리 방법, 제수품목 축소 내역, 재임에 대한 예우 내용, 향사별 회계보고 방법, 山監 위임 등
- ⑥ 土齋營建以後參攷事項(박111) : 1916년~1940년. 宗會에서 결정 시행한 주요 사항<sup>64)</sup>  
齋任의 추천과 결과, 공사의 발의와 시행, 비용의 납부 상황, 부족한 재원

61) 독립 문건이 아니라 「彙省錄第五」(박126)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62) 독립 문건이 아니라 「攷往錄」 속에 수록되어 있다.

63) 독립 문건이 아니라 「攷往錄」 속에 수록되어 있다.

64) 독립 문건이 아니라 「攷往錄」 속에 수록되어 있다.

마련 방법, 개인명의 토지의 이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와 실천 내용 기록

⑦ 議事記錄簿(박233). 1938년~1947년. 춘추 향사시 宗會의 각종 결정사항 기록

都有司 有司 掌議 議員 理事 등의 선임 과정과 결과. 기타 부동산 이전, 墓所 立碣, 묘사 날짜 변경, 유사의 임기 연장 등에 대한 토론 내용 기록

위의 ①③은 오토재 자체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고, ②는 별묘로 편입된 진민사의 향사 집행과 관련된 것이며, ④는 오토재 중건을 위한 성금 모금 방법과 절차를, ⑤는 1915년 화재 이후 향사 비용의 절약과 축소를 위한 변경 지침을, ⑥⑦은 기타 중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그 실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런 문건은, 위에 요약 정리한 바와 같이, 기록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오토재의 경우 位土의 수입 관리, 향사의 날짜 변경, 향사 비용의 총액 한도, 제수품의 품목과 규모, 齋員 齋直 등의 수고비 산정, 남은 제수품 처리 방법, 불참자에 대한 처벌, 부족한 재원 충당 방법, 松楸 禁護의 원칙, 偷葬 발생 시 대처 요령, 재임의 자격과 선임 방법 등 유의해야 할 중요 사항을 두루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진민사의 향사나 오토재 중건에 관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 별묘 향례는 늘 매년 3월 上丁日로 정한다.
- 별묘 향례 제수는 전례에 따라 날것으로 올린다. 희생은 닭으로 대신한다.
- 향사 齋儒는 문서를 낼 필요 없이 각 마을에서 1명씩 보낸다.  
(천전, 금계, 구호, 개일, 중사촌, 서면)
- 각 마을에서 보내는 1명의 노자돈은 각 마을에서 마련하고 향례소 비용에 추가하기를 기대함이 없어야 한다.
- 재유는 정해진 1명 외에 더 참석한 자가 있을 지라도 支供을 허락하지 말라.
- 재유의 이틀 숙박비는 향례소에서 부담한다.
- 3명의 임원은 오토재사의 유사가 맡아서 행한다.
- 도유사의 왕래 노자돈은 언제나 먼 곳이면 3양, 가까운 곳이면 1양 혹은 5전으로 정한다.

- 별묘에서 추수한 것은 매년 조심스럽게 살펴 점검하고, 각각 文簿를 작성하여 향례 때 대조 검토하며, 잉여분은 별도 조치하고 오토제도록에 섞어 넣음이 없어야 한다.
- 향례가 끝난 뒤 3명의 재임 이하는 각자 출발해서 돌아가고 그대로 머물러 비용을 추가함이 없어야 한다.<sup>65)</sup>

위는 1891년 진민사 향사에 관련된 지침을 기록한 「五土山別廟享禮時事例」(박122)이다. 이를 보면 진민사의 향례 날짜, 제수품의 형태, 齋儒의 파견과 비용 부담 방법, 임원을 담당할 인물의 위촉 원칙, 도유사에 대한 예우 정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유의사항과 문서 처리 방법, 향례 참사자의 체류 기간 제한 등 진민사의 향사에 관련된 세부 원칙을 10개 조목에 걸쳐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節目 事例 議事錄 등은, 문건 수가 많지는 않지만, 오토재와 진민사의 핵심적인 운영 원칙을 다른 어떤 문건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란 점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移建 重建 修理 등에 관한 문건이다. 이런 문건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것은 「旻往錄」이다. 「고왕록」은 ‘지난 역사에 대한 고찰(을 위한) 기록’ 정도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는 오토재와 진민사의 역사적 사적을 파악하는데 아주 요긴한 글 약 28편을 수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17편이 이건 중건 수리 등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개별 문서 가운데도 이런 종류의 문건이 적지 않았다. 하나의 독립적인 문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약 27건, 다른 문건의 일부로 편입되어 간접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약 4건 정도 있으며, 기타 문집이나 현장에서 이와 중복되지 않는 여타 비문 등도 약 12편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65) 「五土山別廟享禮時事例」(박122), “一 別廟享禮 以每年三月上丁恒定事, 一 廟享祭需依舊例 生薦事 牲代鷄, 一 享祀時齋儒 不必出文 自各村各送一員事(川前 金溪 龜湖 開日 中沙村 西面), 一 各村送一員資斧 自其各村辦備 無待貼契本所事, 一 齋儒一員 定式外 雖有來參者 勿許支供事, 一 齋儒二宿料 自享禮所擔當事, 一 三任 以齋舍有司 遵行事, 一 都有司往來資斧 遠地則以參兩爲定 近地則或壹兩或伍錢恒定事, 一 別廟所秋收 每年楊念看檢 各成文簿 於享禮時照勘 而以其贏餘 別般拮据 無得混入本齋都錄事, 一 享禮齋罷後 三任以下 各自發歸 無得留連貼契事”

- 「攷往錄」 수록 자료 (17건. 연대순 재정리)
- ① 鎮民祠移建記 : 1662년 金應祖 찬. 安應昌이 진민사를 이긴한 내역 기록
  - ② 鎮民祠重修記 : 1749년(己巳) 3월. 후손 金聖欽(1682~1757) 찬. 진민사 증수 기록
  - ③ 附後孫龍翼呈金義城履福詩并序 : 1767년 오토재 화재 이후 중건 과정 상세 서술
  - ④ 五土山齋舍重修記 : 1770년 李象靖 찬. 오토재 화재로 증수한 내역 상세 기록
  - ⑤ 思敬樓重修記 : 1850년(庚戌) 후손 金明壽 찬. 오토재 略史와 사경루 증수 기록
  - ⑥ 鎮民祠事蹟 : 1860년경. 경상감영에 진민사 창건 사적과 현황 보고한 기록
  - ⑦ 別廟上樑文(移建時) : 1870년경. 金道和(1825~1912) 찬.  
의성읍내 진민사를 오토재 별묘로 이긴한 이후 별묘 상량문
  - ⑧ 修墓時告由文 : 1900년대 초(?). 후손 金崧鎮(1850~1919) 찬. 묘소 수리 고유문
  - ⑨ 五土山豎碣時通文 : 甲申(?) 10월 10일, 묘소 비석 改豎를 위한 모금 관련 통문
  - ⑩ 五土齋別廟修理時移安告由文 : 1915년. 후손 金鎮聲(1862~1933) 찬.
  - ⑪ 五土齋別廟修理時還安告由文 : 1915년 후손 金鎮聲(1862~1933) 찬  
1915년 오토재 화재로 별묘를 증수할 때 위패를 移安 還安한 고유문
  - ⑫ 五土齋重建通文 : 1915년 화재로 오토재 중건을 알리고 모금 방법을 節目으로 밝힘
  - ⑬ 五土齋舍講堂上樑文 : 후손 金鎮聲(1862~1933) 찬. 1915년 화재 후 강당 移建 상량문
  - ⑭ 神道碑閣上樑文 : 후손 金天浩(1864~1949) 찬. 1925년 신도비 豎碑 후 비각 상량문
  - ⑮ 土齋營建以後參攷事項 : 1916.2~1940.2까지 강당 廚舍 神道碑 등 영건 사실 기록
  - ⑯ 鎮民祠重建上樑文 : 1962(壬寅) 7월. 후손 金佑林(1896~1978) 찬. 진민사 중건 상량문
  - ⑰ 鎮民祠重創廟庭碑 : 1965년 후손 金元大(1890~1979) 찬. 진민사 증창 기록

□ 별건 문건 자료(31건. 연대순 재정리)

- ① 祠宇移創時列邑扶助記(박112) : 1666년. 진민사 이건 시 부조 기록
- ② 展省錄第三(박124) : 1764년(甲申) 진민사 수리 시 移安 還安 고유문 있음
- ③ 省墓錄第二(박146) : 1772년(壬辰) 묘소 수리 시 집사분정 기록 있음
- ④ 五土山齋舍重建時食下記(박138) : 1916년 오토재 중건 시 식사비 내역  
齋舍宗會時와 邑會時로 구분. 특히 邑會時 내역 상세
- ⑤ 五土齋重建時都錄(박158) : 1916년(丙辰) 6월. 오토재 중건 시 수입 지출  
내역
- ⑥ 五土齋草家役時文簿(박182) : 1916년 오토재 草家 공사 시 지출내역
- ⑦ 五土山齋舍重建時錢下記(박135) : 1916년(丙辰) 3~4월. 재사 중건 경비  
내역
- ⑧ 五土山齋舍重建時食下記(박138) : 1916년. 오토재 중건 시 식사비 내역
- ⑨ 五土山齋舍重建時出義別錄(박136) : 1916년(丙辰) 4월. 재사 중건 성금  
내역
- ⑩ 五土山齋舍重建時冠錢收捧錄(박137) : 1916년(丙辰) 4월. 재사 중건 성금  
내역
- ⑪ 五土齋重建時金錢出納簿(박191) : 1916년(丙辰). 재사 중건 성금 및 지출  
내역
- ⑫ 義城金氏宗中冠錢收納冊(박200) : 1917년 5~7월. 재사 중건 성금 내역
- ⑬ 五土齋重建時冠義金領收冊(박202) : 1917.7.14.~1918.9.17. 성금 내역
- ⑭ 五土齋重建時食床下記(박139) : 1917.7~1918.8. 중건 시 월·일별 식비내역
- ⑮ 五土齋重建時雜用文簿(박140) : 1917.7~1918.8. 중건 시 월·일별 잡비내역
- ⑯ 義城金氏五土齋重建時修單案(박141) : 1917년. 자손 성금 납부내역
- ⑰ 五土齋重建時修單案(박141) : 1917년. 자손 성금 납부 명단과 내역
- ⑱ 五土齋重建時修單案(박141) : 1918년. 자손 성금 납부 명단과 내역
- ⑲ 五土齋舍用下文簿(박184) : 1918년. 廟位重修時用下記 있음
- ⑳ 上樑文(박133) : 1922년 후손 金正和 찬. 오토재 중건 상량문
- ㉑ 詹事公立石告由時執事(박209) : 1924년. 첨사공 신도비 입석 때 집사분정
- ㉒ 詹事公立石告由時爬錄(박132) : 1924년. 첨사공 신도비 입석 때 집사분정
- ㉓ 蓋瓦下記(박194) : 1931년(辛未) 7월. 蓋瓦 지출내역
- ㉔ 五土山別廟營建日記(박142) : 1942.2.18.~9.17. 오토재 별묘 중건 일기
- ㉕ 五土齋修理雙方契約書(박205) : 1955년. 오토재 수리 계약문서

- ㉞ 賣松文簿(박186) : 1955년. 廟宇及講堂修理時入金記 있음
- ㉟ 廟宇講堂修理時收支記(박143) : 1955년. 묘우 강당 수리 시 금전 수입 지출내역
- ㊱ 五土齋重建時日記(박144) : 1962.7.7.~10.28. 오토재 중건 공사 일기
- ㊲ 五土齋碑閣講堂修理日記(박134) : 1963.3.19.~4.23. 오토재 비각 강당 수리 일기
- ㊳ 溜池工事簿記(잔61) : 1966년~1967년. 오토재 연못조성 시 수입 지출내역
- ㊴ 五土齋重建獻誠錄(잔67) : 1987년~1988년. 오토재 중건 시 성금 기탁자 명단

□ 기타 문집과 현장 자료(12건. 연대순 정리)

- ① 五土山立石發文 : 1576년<sup>66</sup>. 金璣(1500~1580)이 墓碑 입석 발의문
- ② 始祖太子詹事府君墓碑 : 1577년<sup>67</sup>. 金宇顥(1540~1603)의 침사공 묘비문
- ③ 鎮民祠重修記 : 1807년<sup>68</sup>. 金堧(1739~1816)의 진민사 중수 기문
- ④ 鎮民祠遺址碑陰記 : 1890년. 金興洛(1827~1899)의 진민사 유허비 음기
- ⑤ 鎮民祠遺址碑陰記後識 : 1890년. 金胤鉉(미상)의 진민사 유허비 음기 후지
- ⑥ 鎮民祠遺址碑閣記 : 1890년. 金道和(1825~1912)의 진민사 유허비각 기문
- ⑦ 鎮民祠遺墟碑閣重丹牘記 : 1904년. 金弼華(미상)의 유허비각 단청 기문
- ⑧ 鎮民祠遺址碑閣重修記 : 1911년. 金翰周(1856~1929)의 유허비각 중수 기문
- ⑨ 鎮民祠重建記 : 1962년. 金正模(1889~1967)의 진민사 중건 기문
- ⑩ 五土齋重建記 : 1988년. 金喆熙(1915~2009)의 오토재 중건 기문
- ⑪ 鎮民祠重建記 : 1988년. 金日大(1919- ?)의 진민사 중건 기문
- ⑫ 思敬堂重建記 : 1989년. 金秉武(미상)의 사경당 중건 기문

---

66) 金宇顥이 본 비문을 작성시기가 1577년 무렵임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67) 비문에 “이제 吏部가 同宗 제현과 함께 비를 세워 이를 기록하게 하니(今吏部與同宗諸賢 立石以識之”란 표현이 있다. 여기서 吏部는 立石을 발의한 金璣(1500~1580)의 아들 金誠一이 吏曹郎으로 있었음을 가리키는데, 김성일은 1576년 봄에 이조좌랑, 1577년 겨울에 이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1577년 무렵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68) 비문에 “1802년 진민사에서 대동보 편찬을 마친 뒤 중수를 결정하였다.....5년 뒤인 1807년(丁卯) 2월 일을 시작하여 5월에 마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근거로 작성 연도를 추정하였다.

위를 보면 1576년 무렵 靑溪 金璣(1500-1580)이 처음으로 묘소에 묘비 건립을 발의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민사의 移建 重建 重修 修理와 遺址碑 건립, 오토재의 창건 중건 중수 수리와 草家 蓋瓦 공사, 思敬樓 중수와 思敬堂 중건, 묘소 수리와 묘비 건립 및 改礪, 신도비의 건립과 碑閣의 보수, 연못과 思源池 조성 등 술한 건물과 시설에 대한 이건 중수 보수 등의 사적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진민사 관련 내역

1662년 이건, 1749년 중건, 1764년 수리, 1807년 중수, 1870년 이건(別廟), 1890년 유지비 건립, 1904년 유지비각 단청, 1911년 유지비각 중수, 1915년 수리, 1918년 중건, 1942년 중건, 1955년 수리, 1962년 중건, 1965년 중창 묘정비 건립, 1988년 중건

□ 오토재 관련 내역

1662년 창건, 1770년 중건, 1850년 思敬樓 중수, 1916년 草家 중건, 1931년 蓋瓦, 1955년 수리, 1962년 중건, 1988년 중건, 1989년 思敬堂 중건

□ 묘소·묘비·신도비 등

1577년 묘비건립, 1772년 묘소수리, 1900년대 초 묘소수리와 묘비개갈, 1924년 신도비 건립, 1925년 신도비각 상량, 1963년 신도비각 수리, 1966년 溜池(연못)工事, 1988년 思源池 조성

위는 「攷往錄」 수록 자료 17건, 별건 자료 31건, 기타 문집이나 현장 자료 12건 등을 참고하여 이건 중건 중수 수리 등이 실제로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 따로 정리해 본 것이다. 이를 보면 진민사의 경우 이건 중건 7차례, 중수 수리 4차례, 유지비와 비각의 건립 중수 3차례가 있었고, 오토재의 경우 창건 중건 6차례, 중수 수리 개와 등이 3차례 있었으며, 묘소 수리 2차례, 묘비 건립과 改礪이 2차례, 신도비 건립과 비각 수리 등이 3차례, 연못 공사가 2차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916년 무렵 오토재 중건과 관련된 사항을 따로 기록한 개별

문건 약 17건(개별문건④~⑳), 1916년 이후 강당 廚舍 神道碑 등의 영건 사항을 기록한 「土齋營建以後參攷事項」(고왕록⑮), 1942년 별묘 중건 과정을 일기체로 기록한 「五土山別廟營建日記」(㉔), 1962년 오토재 중건과 1963년 비각과 강당 수리 내용을 동일한 방식의 일기체로 기록한 「五土齋重建時日記」(㉘) 「五土齋碑閣講堂修理日記」(㉙) 등은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중건이나 수리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공사의 재원 마련이나 비용 지출, 공사 대상과 시행 규모, 구체적 공사의 진행 일정 등 유익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다른 어떤 문건보다 자세하고 풍부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오토재 문건은 이처럼 時到 謁廟錄類의 방문 인물, 都錄 文簿類의 재정 운용, 展省錄類의 재임과 집사분정, 節目 事例 議事錄類의 운영 원칙, 攷往錄을 비롯한 이건 중건 보수 관련 등이 내용상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이런 문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오토재의 운영 주체, 운영 원칙, 물적 근거, 재정 운용, 향사의 종류와 집행 절차, 관련 시설의 역사적 변천 양상,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 등을 대단히 자세하게 검증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오토재 문서의 자료적 가치가 있다.

#### IV. 결론

본고는 오토재에서 생산한 문서가 대단히 다양하고 풍부한 사실에 주목하고, 현존하는 문서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결과, 오토재 문서가 시기적으로 특별히 오래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 사족의 삶과 깊이 연계된 재사와 향현사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오토재 문서는 전체가 대략 202건 가량이었다. 시기적으로는 1945년 이후 현대문서가 제일 많았고, 다음은 일제강점기 문서가 많았으며, 1910년

이전 고문서는 약 29건으로 전체의 15%정도였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는 1600년대 중반 진민사 이건을 돕기 위하여 각 고을에서 부조한 내역을 기록한 「祠宇移創時列邑扶助記」였다. 그 다음 1700년대 문서는 진민사를 참배하거나 향사에 참여한 인물 명단이 대부분이었고, 1800년대 문서는 관청에 올린 所志와 관청에서 내린 傳습이 가장 주목할 만하였다. 일제강점 이후 문서는 매우 다양하였는데, 방문 인물과 관련된 문건(時到 參謁錄類), 각종 수입 지출 현황을 기록한 재정문서(都錄 文簿類), 운영 주체에 대한 기록(齋任案과 執事分定), 운영 원칙과 규정(節目 事例類), 이건 중건 관련 문건 등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방문 인물과 관련된 문건은 오토재 문서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기록 내용이 다양하고 장기 지속적이란 점이 특징적이었다. 그래서 오토재의 시기별 방문자 규모와 지역적 분포, 성씨별 참사 현황과 역사적 변화 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었으며, 나아가 진민사와 오토재의 성격, 향촌 사회에서의 영향력 등을 밝히는데도 유용한 근거 자료로 삼을 만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토재 운영의 핵심적 주체였던 齋任의 현황 파악, 진민사를 통합함에 따른 향사의 재조정 등과 같은 사실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인물 관련 문건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재정 관련 문건은 오토재의 기본 재산, 연도별 수입과 지출 상황 등 물적 기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는 점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재정관련 문건 속에는 이와 다른 차원의 부가적인 정보가 대단히 많았다. 제수물품의 종류, 주요 임원에 대한 예우, 왕래하는 임원의 여비 처리, 공사 진행에 소요된 각종 잡비 등이 모두 그런 것이었다. 따라서 재정 관련 문건은 오토재의 물적 기반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물론, 오토재 운영의 세부 정보를 다른 어떤 자료보다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란 점에 특별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만하였다.

세 번째로 유의할 만한 문서는 齋任案과 執事分定이었다. 齋任案은 오토재 운영을 공적으로 책임진 임원 내역을 기록한 것이고, 執事分定은 향사가 있

을 때마다 독자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한 집사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모두 오토재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오토재 문서 가운데는 이런 종류의 문건이 약 20건에 달하였으며, 기록 내용이 자세하고 장기 지속적이었다. 따라서 두 종의 내용을 분석할 경우 오토재 운영을 주도한 핵심 인물의 실체를 상당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직업의 종류와 구성원의 변천까지 함께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운영 원칙과 지침을 기록한 節目 事例 議事錄 등이었다. 오토재 문서 가운데는 이런 문서가 약 7건으로 수량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토재 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원칙은 물론, 별모로 편입된 진민사 향사의 집행과 관련된 원칙, 오토재 중건을 위한 성금 모금 방법과 절차에 관한 원칙, 향사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변경 지침, 기타 종회에서 결정한 운영 원칙 등을 대단히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를 보면 오토재가 실제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런 문건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이건 중건 보수 등과 관련된 문건이었다. 이런 문건을 가장 많이 수록한 것은 「攷往錄」(17편) 이고, 질적으로 기록 내용이 가장 자세한 것은 일기 형식의 「五土山別廟營建日記」 「五土齋重建時日記」 「五土齋碑閣講堂修理日記」 등이었으며, 특히 집약된 대상은 1916년 무렵의 오토재 중건 관련이었다. 그리고 개인 문집이나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비문 기문 등도 적지 않았는데, 이를 모두 감안할 경우 약 60건에 달할 정도였다. 이처럼 이건 중건 보수 관련 문건은 오토재의 역사적 변천상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 외에도 오토재 문서 가운데는 여타 재사나 향현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가 많다. 정기적인 향사와 관련된 祭物品數記 飲福開座, 부정기적 특수 활동과 관련된 宗會 邑會 採松 防川 執穗 蓋瓦 등의 문건, 기타 器物傳 興記와 物品傳興記가 그런 것인데, 이를 통해 다른 어떤 재사나 향현사보다 구체적인 운용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런 문건에 대한 본격

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영남지역 재사나 향현사의 실상을 규명하는 표본적 사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7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五土山誌編纂委員會, 『義城金氏五土山誌』, 1989  
의성김씨오토산관리위원회, 『義城金氏五土山略誌』, 대보사, 1988  
조문국박물관, 의성조문국박물관상설전시도록 『의성』, 2014  
鶴峯先生紀念事業會,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여강출판사, 1993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상세목록, 유인본, 2014  
의성김씨·오토산·오토재 홈페이지, <http://otosan.kr>

Abstract

## Extant Literature of Otojae Ritual Houses and Its Overview and Characteristics

Hwang, Wee-zoo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overview of the extant documents concerning Otojae ritual houses. 202 documents concerning Otojae, totaling 3,500 pages, were discovered. By time, the documents recorded since 1945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ver 50%), followed by documents record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about 30%), and documents recorded before 1910 (29 cases or 15%). By content, noteworthy were the five categories of visitors, financial operation, operators, operation rules, and the reconstruction and renovation of facilities. The documents concerning visitors represented the largest number and offered the diversity of contents. They were noteworthy as the key materials which can offer insight into the size of Otojae visitors and its chronological changes, and their influences in communities. Documents concerning finance, the second largest in number, offered the records of Otojae's finances and revenue and expenditure, as well as of ritual items, special treatment of officers, construction cost, and treatment cost among other incidental information. Documen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Otojae described the chronological records of personal details of officers, offering a rough sketch of the actual operators of Otojae. Documents concerning

the principle of operation was not many. However, they described the diverse rules on the appointment of officers, special treatment of officers, preparation of rituals, and collection of donation, thus offering the most accurate details of what rules Otojae was operated by. Documents concerning reconstruction and renovation described the chronological changes of the facilities, and in particular, some diaries offered detailed description and were systematically recorded, thus making them worth studying. Among other documents are many rare ones. Thus, if this study continues, the standard samples of the tomb ritual houses and sage memorial community shrines of Yeongnam region can be identified.

**key words** : Kim Yong-bi(金龍庇), Jeonminsa Memorial Shrine(鎮民祠), Otojae(五土齋), ancient literature, Kim of Uiseong Clan, tomb ritual house(齋舍), sage memorial community shrine(鄉賢祠)